

발표일 : 2018년 2월 28일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3~2017년) 3월 상순의 파고는 서해 일부해상에서는 낮았으나 그 밖의 전 해상에서는 약간 높았고, 중순의 파고는 서해 일부해상에서는 낮았으나 그 밖의 전 해상에서는 약간 높았음. 하순의 파고는 서해 일부해상과 남해 일부해상에서 낮았으나 그 밖의 전 해상에서는 약간 높았음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최근 5년간(2013~2017년) 3월의 평균 풍랑특보 발표일 수는 6.3일로 2월(8.0일)보다 1.7일 감소하였으며, 상순 3.0일, 중순 2.1일, 하순 1.2일로 발표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3~2017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및 풍랑특보 발표 일수임

- 3월의 조위는 서해안의 인천은 3월 3일에 912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3월 2일에 388cm, 동해안의 포항은 3월 2, 3일에 1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최근 5년간(2013~2017년) 3월의 해양선박 사고는 전체 11,209척 중 799척(7.1%)이 발생함
- 봄철 국지적인 해무 발생에 따른 안전항해에 유의

<3월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 항해 및 조업 중 경계유지 철저, 피항협력 조치!!

어업기상

- 3월의 연안 월평균 수온은 평년에 비해 1 ~ 2℃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동해 : 4 ~ 9℃ • 남해 : 8 ~ 13℃ • 서해 : 3 ~ 8℃

자료협조 :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13~'17년) 3월 순별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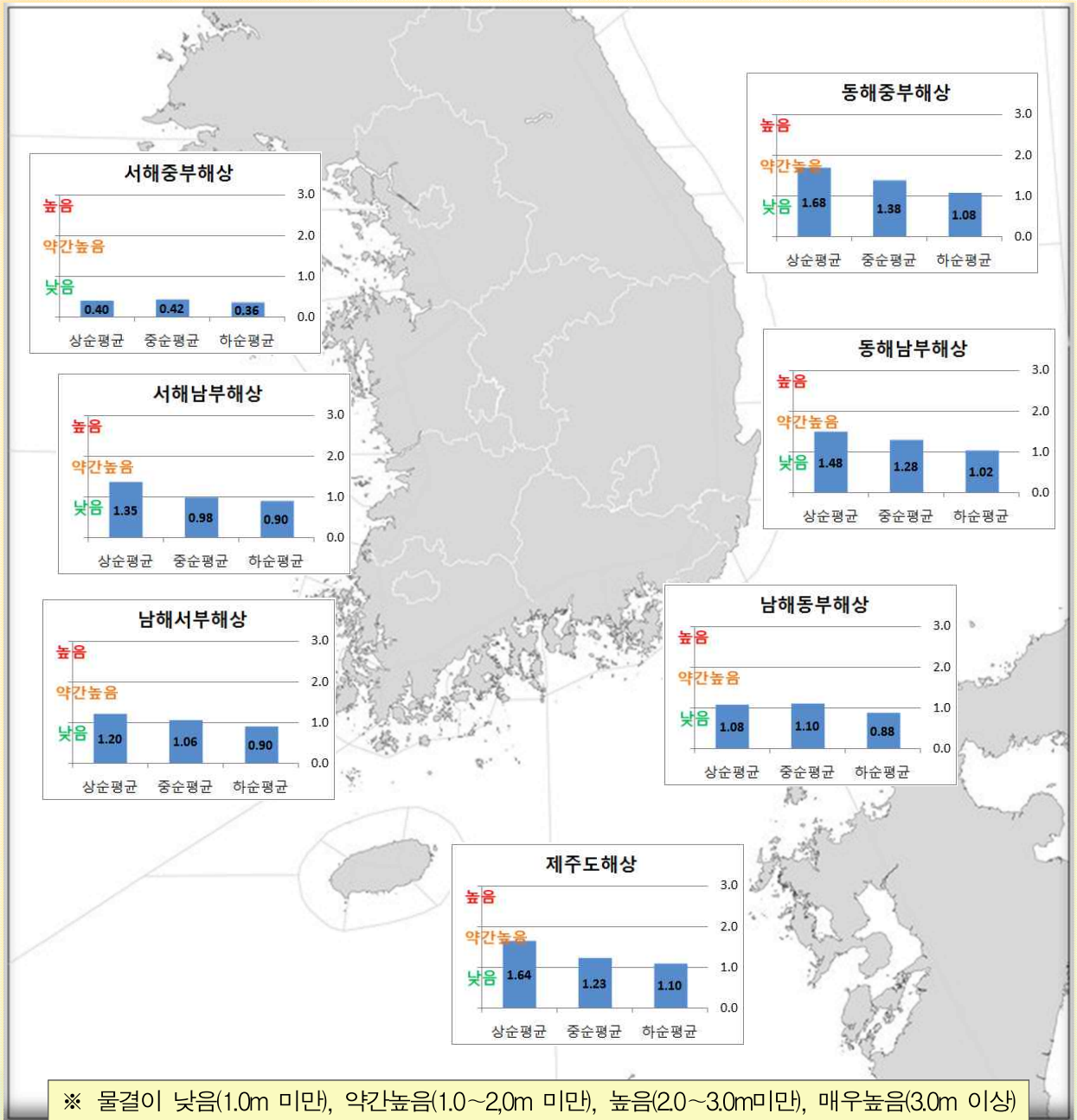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3 ~ 2017년) 3월 해역별 파고 특성

- ▶ 파고정보는 해역별 해양기상부이의 최근 5년(2013~2017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을 활용
 -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서해남부(칠발도)
 - 남해서부(거문도), 남해동부(거제도), 제주도 남쪽(마라도)
 -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 최근 5년('13~'17년)간 3월 지점별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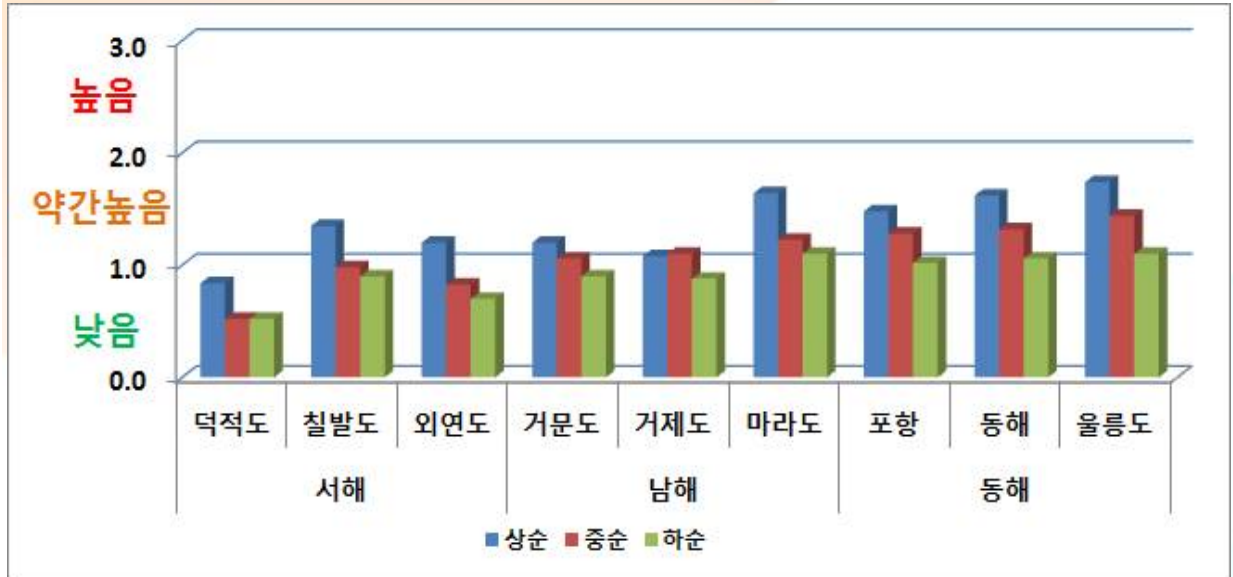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간(2013 ~ 2017년) 3월 순별 파고 관측값

○ 최근 5년간 3월 순별 파고 특성

- 3월 상순

서해 일부해상(덕적도)의 파고는 낮았으나 그 밖의 전 해상(외연도, 거문도, 마라도, 포항, 동해, 울릉도)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며 동해해상(동해, 포항, 울릉도)과 제주도남쪽해상(마라도)의 파고가 다른 해상보다 비교적 더 높았음

- 3월 중순

서해 일부해상(덕적도, 칠발도, 외연도)의 파고는 낮았으나 그 밖의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 3월 하순

서해 일부해상(덕적도, 칠발도, 외연도)과 남해 일부해상(거문도, 거제도)의 파고는 낮았으나 그 밖의 해상(마라도, 포항, 동해, 울릉도)의 파고가 약간 높았음

○ 최근 5년간 3월 파고 최고, 최저 해역

- 가장 높았던 해역 : 동해중부먼바다(울릉도) / 1.7m(상순)

- 가장 낮았던 해역 : 서해중부앞바다(덕적도) / 0.5m(중순, 하순)

▶ 최근 5년('13~'17년) 및 2017년 3월 풍랑특보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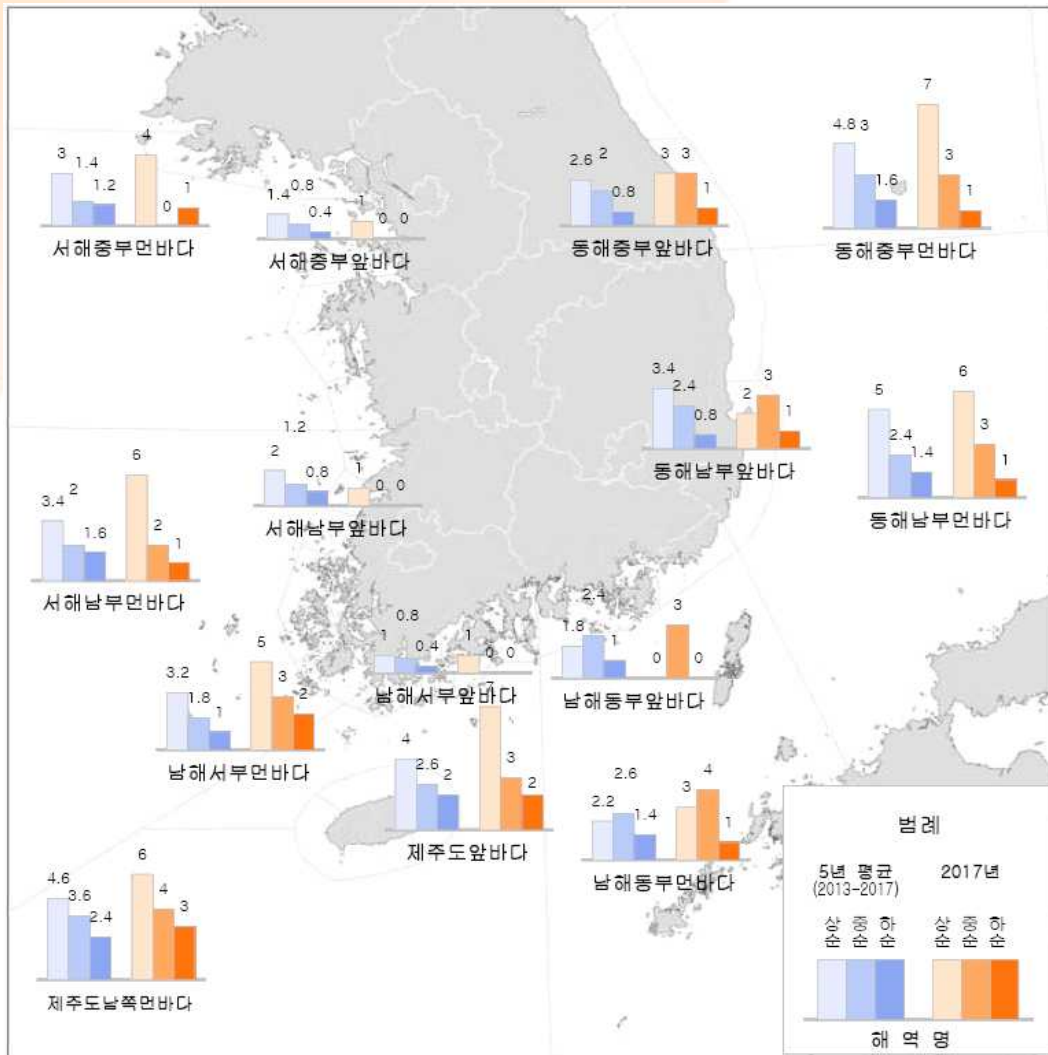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5년(2013~2017년) 및 2017년 3월의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최근 5년간 3월 풍랑특보 평균 발표일 수 : 6.3일 / 지난 달 보다 1.7일 감소(2월 평균 :8.0일)
- 3월 순별 풍랑특보 평균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간 평균 : 상순 3.0일 / 중순 2.1일 / 하순 1.2일
 - 지난해(2017년) : 상순 3.7일 / 중순 2.2일 / 하순 1.0일
- 최근 5년간 3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최소 해역
 - 가장 많았던 해역 : 동해남부먼바다 / 평균 5.0일
 - 가장 적었던 해역 : 서해중부앞바다, 남해서부앞바다 / 평균 0.4일

▶ 지난해(17년) 3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및 파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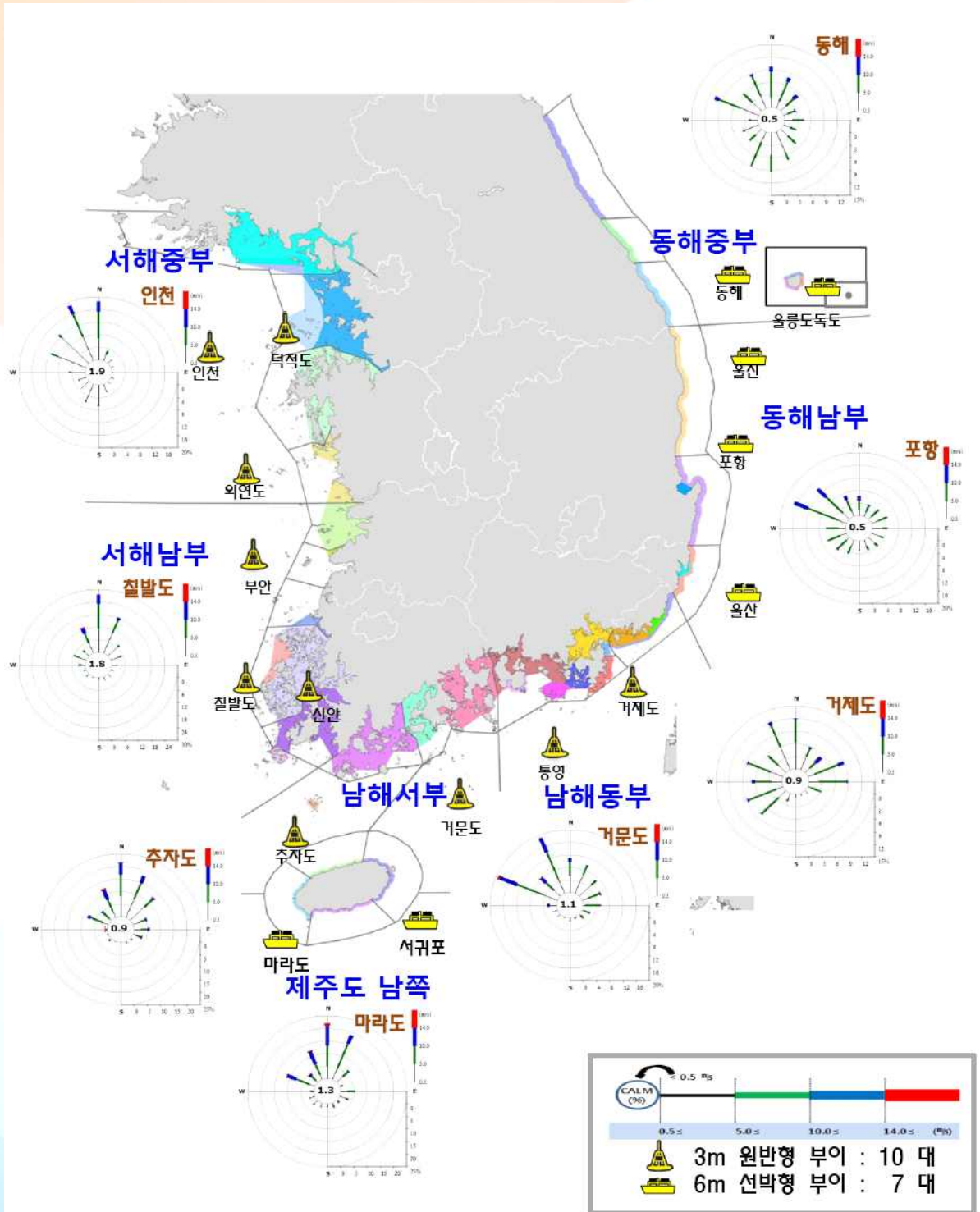


그림 4. 해양기상부이 2017년 3월 해상풍 바람장미

☞ 해양기상부이의 전체지점에 대한 해상풍 바람장미는 부록1. 을 참고

■ 지난해(2017년) 3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구분	주풍계	풍속(m/s) 분포(%)					비고 (관측지점)
		Calm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N~NW	4.9	65.3	24.1	5.6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N	3.5	61.1	27.9	7.4	0.1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NW~NE	1.0	40.2	42.2	15.7	0.9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NW	1.0	40.3	49.2	9.3	0.2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	0.9	39.7	52.2	7.0	0.3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	0.7	38.1	51.1	10.1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남쪽	N~NW	1.5	34.3	41.5	20.1	2.5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2.1	47.0	40.2	10.3	0.5	

- 주풍계 : 서해와 남해는 북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고, 동해는 뚜렷한 주풍이 나타나지 않고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었음
- 전 해상 풍속 : 5.0m/s 미만 49.1% / 5.0~9.9m/s 40.2% / 10.0m/s 이상 10.8%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 5.0m/s 미만 : 서해중부해상(70.2%),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
 - 10.0m/s 이상 : 제주도남쪽해상(22.6%),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

■ 지난해(2017년) 3월의 해역별 파고 계급별 분포

해역구분	파고(m) 분포(%)					비고 (관측지점)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중부	76.1	19.9	3.7	0.3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77.8	13.9	6.7	1.7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61.1	33.7	4.5	0.7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60.4	37.8	1.8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46.0	39.8	10.9	3.3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47.9	40.9	9.7	1.4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남쪽	47.4	38.1	11.4	3.0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60.6	31.1	6.9	1.4		

- 전 해상 파고 : 1.0m 미만 60.6% / 1.0~2.0m 31.1% / 2.0m 이상 8.3%
 - 서해는 1.0m 미만의 낮은 파고가 77.0% 분포함
 - 동해에서는 2.0m 이상의 높은 파고가 6.3% 분포함
- 파고 분포 최다 해역
 - 1.0m 미만 : 서해남부해상(77.8%)
 - 3.0m 이상 : 동해중부해상(3.3%)

▶ 봄철 서해, 남해 등 연안지역 '기상해일' 주의!!

기상해일은 강한 기압변동에 의해 발생한 해수면의 천해파가 기압변동과 같은 속도로 이동할 경우 공진하면서 증폭되어 해안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봄철(3~5월)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저기압에 의해 발생한 해상의 파동이 서해를 지나오면서 연안의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돌발적으로 증폭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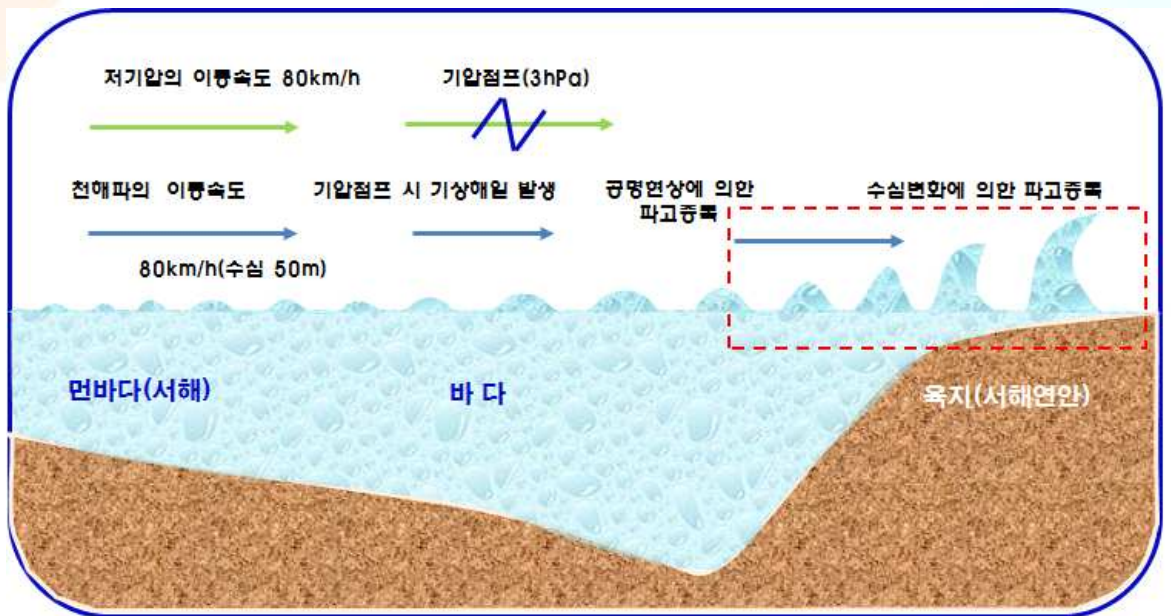


그림 5. 기상해일 발생 모식도

특히, 서해는 평균 수심이 약 40~50m 이므로 천해파의 이동속도가 약 70~80km/h임. 만약 서해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이동속도가 80km/h 라면 천해파 속도와 저기압의 이동속도가 일치하여 날씨가 좋은 날에도 기상해일이 발생 할 수 있음

평균수심	20m	30m	40m	50m (서해평균수심)	60m	70m
천해파 속도	14m/s 50km/h 27knot	17.1m/s 62km/h 34knot	19.8m/s 71km/h 39knot	22.1m/s 80km/h 44knot	24.2m/s 87km/h 47knot	26.2m/s 94km/h 51knot

기상해일 피해사례

국내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2005년 2월 제주 옹포리를 시작으로 2007년 3월 31일에 영광일대에서 발생하여 주택가 침수와 어선 전복 피해가 있었으며, 2008년 5월 4일에는 보령 죽도에서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림 6. 기상해일관련 언론 기사(좌), 2008년 5월 4일 발생 당시 CCTV 스냅사진(우)

2011년 4월 26일 흑산도 일대에서 발생하여 8개소 40대 시설물 전복(휨, 파손), 60대 가두리 유실, 3척의 소형선박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서해안의 기상해일은 먼바다에서 대기의 교란 등에 의해 생성된 장주기 파랑이 연안 가까이 도달하면서 해저지형 등의 영향을 받아 천수효과, 만조, 회절, 반사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으로 발생하니 5월까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양 활동 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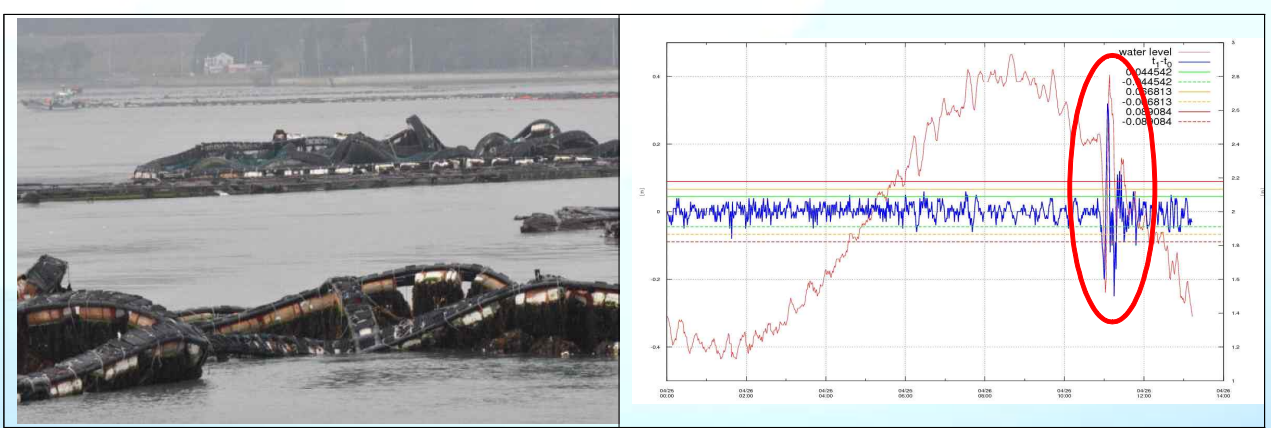





그림 7. 2011년 4월26일 가두리양식장 피해사진(좌), 국립해양조사원 흑산도 검조소 관측자료(우)


 **조석 정보**

 **3월 조석예보**

서해안의 인천은 3월 3일에 912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3월 2일에 388cm, 동해안의 포항은 3월 2, 3일에 1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3월 지역별 고극조위**

해역	지역	대조기(망 3.2)		대조기(삭 3.17)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서해안	인천	17:34	907	17:13	832
	안흥	16:30	673	16:15	623
	군산	15:47	696	15:33	637
	목포	14:49	472	14:31	417
남해안	제주	11:10	273	10:57	245
	완도	10:35	388	10:22	348
	마산	09:22	196	09:06	174
	부산	08:52	122	20:49	109
동해안	포항	02:51	16	03:17	12
	속초	02:41	27	02:45	24
	울릉도	02:12	12	02:24	10

 2018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ARS(1588-9822), 조석예보 앱(Andro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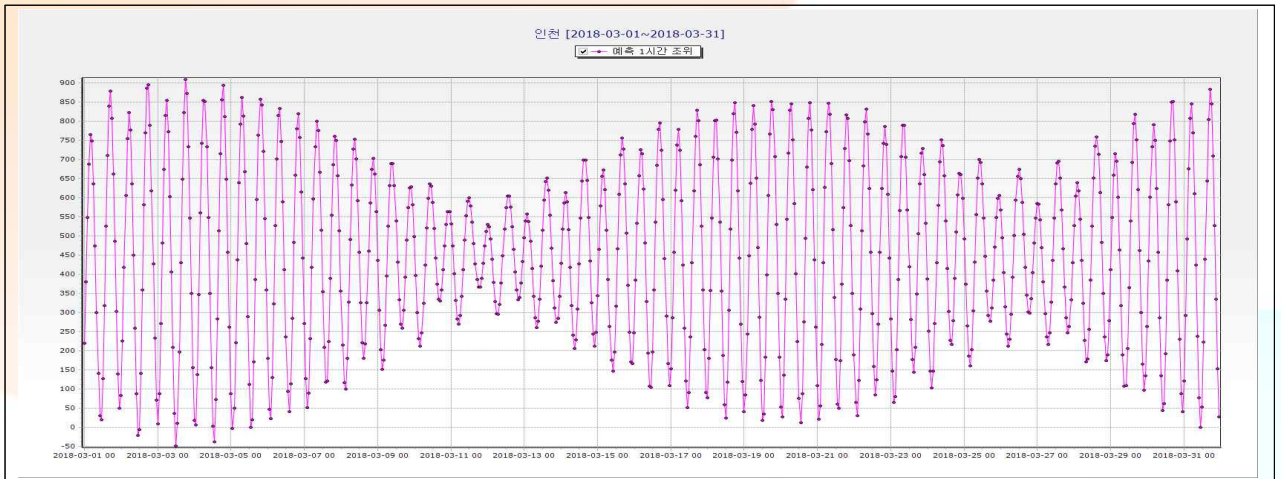


그림 8. 2018년 3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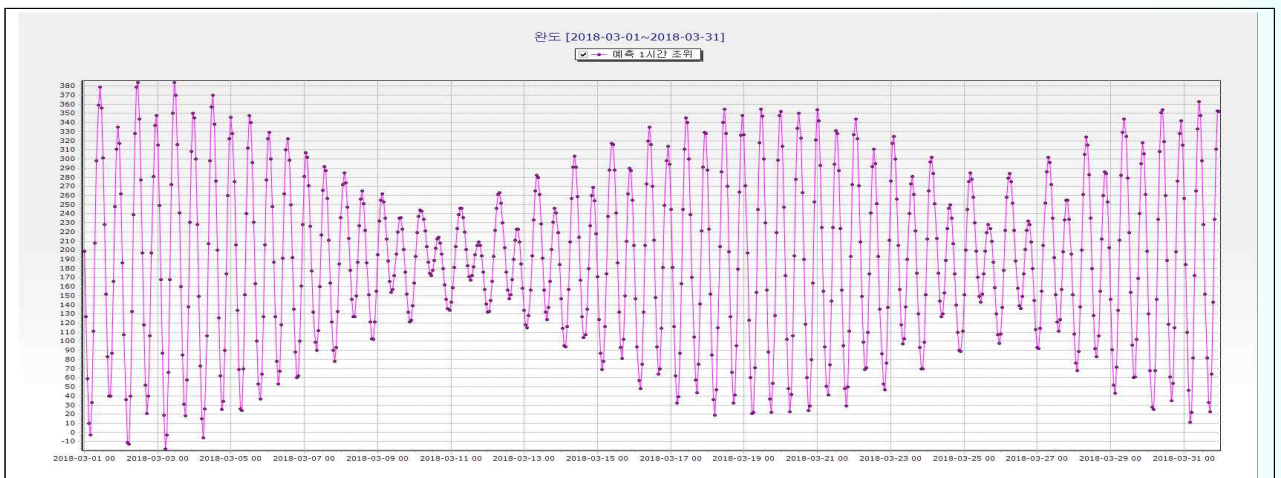


그림 9. 2018년 3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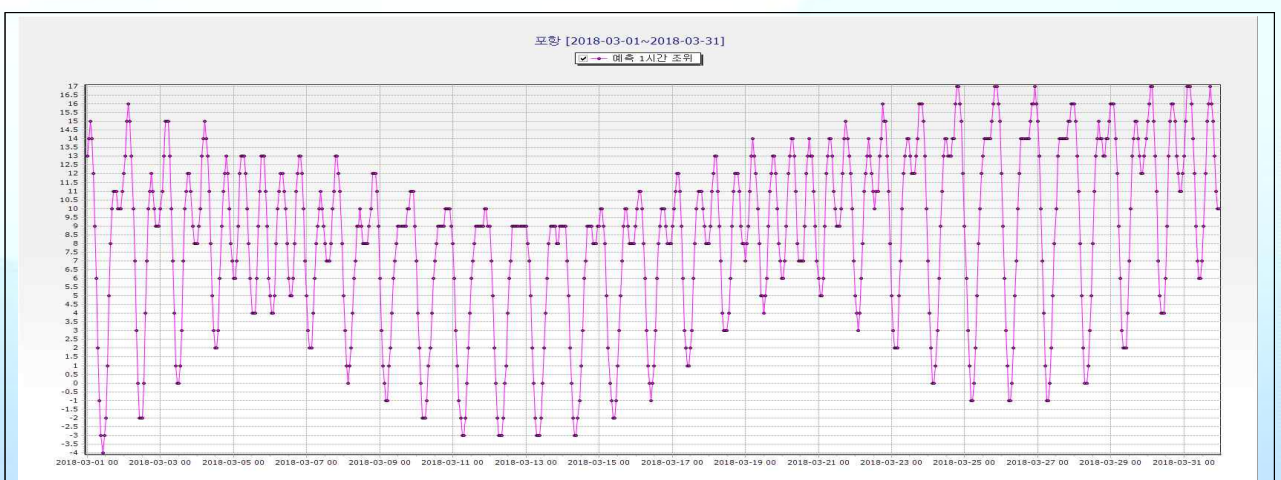


그림 10. 2018년 3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해난사고 현황

제공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최근 5년('13~'17년) 해상조난사고 현황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 총 11,209척(75,419명)이 발생하여 선박 10,888척(97.1%) 및 승선원 74,549명(98.8%)이 구조되었고, 선박 322척(2.9%)이 침몰·화재전소로 소실되었으며, 승선원 870명(1.2%)이 사망(652명)·실종(218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척	명	척	명	척	사망	실종
계	11,209	75,419	10,888	74,549	322	652	218
2017년	3,160	17,296	3,108	17,188	52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64	48	50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01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48	19

■ 월별 선박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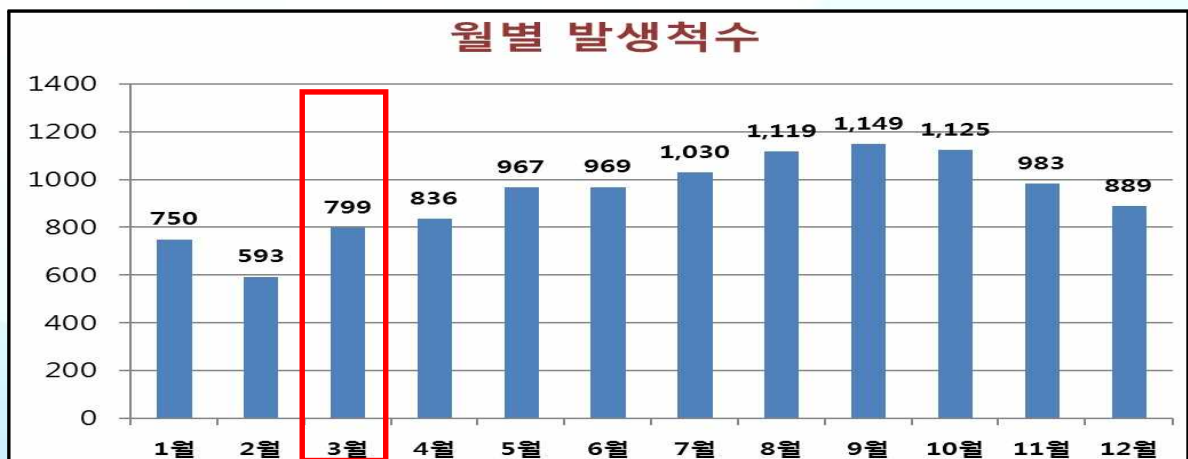


그림 11. 월별 선박사고 건 수(2013~2017년)

☞ 3월 주요 해상조난사고는 부록2. 를 참고

▶ 3월 해상조난사고 현황

- 최근 5년 간 3월에 발생한 해양선박 사고는 전체 11,209척 중 799척(7.1%)으로 연 평균 160여척의 사고가 발생
- 同 기간 사망·실종자는 60명으로 전체 870명 중 7% 차지
- (선종별) 어선 454척, 예부선 61척, 레저선박 101척 順으로 발생

해양 안전정보

○ 봄철 국지적인 해무 발생에 따른 안전항해에 유의

- 3월부터 봄철 행락객이 증가하여 수상레저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운항이 증가하고, 조업철이 시작됨에 따라 출어선도 급증하여 사고 발생 개연성 증가
- 봄철 해상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안개로 인한 시정불량에 따른 부유물감김, 충돌, 사고가 주로 발생
 - * 부유물감김 98척(12.2%), 충돌 96척(12%), 좌초 17척(2.1%)

- 특히 이 시기 서해, 남해해역에서는 해무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레이더 견시를 철저히 하고, 기상예보 및 항행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항해에 유념



제공 : 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13~'17년) 3월 해양사고 현황

○ 3월은 연중 사고 발생율이 낮은 편, 사고유형별 발생 건수가 전월 대비 소폭씩 증가(최근 5년간 월평균 157건, 3월 127건)

○ 최근 5년간 3월 해양사고 : 총 634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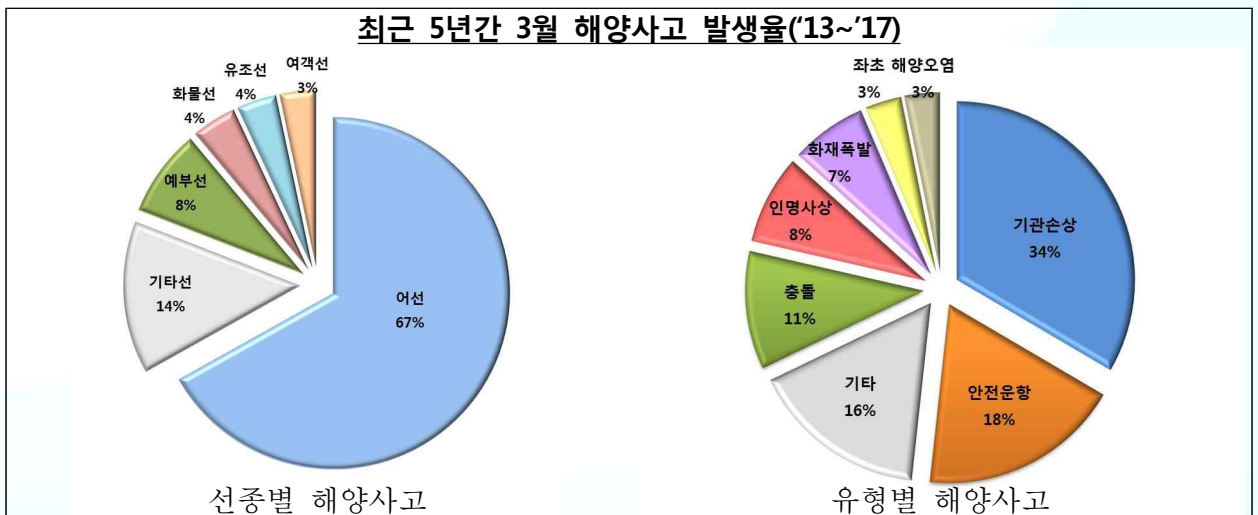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650	524	634	657	835	848	829	908	924	943	868	801

* 2013~2017 통계기준('17년 통계는 잠정치로, 보정 후 '18.3월중 공표예정)

○ 최근 5년('13~'17년) 3월 해양사고

- (선종별) 어선 424건, 예부선 51건, 화물선 26건, 유조선 23건, 여객선 21건 등의 순

- (사고유형별) 기관손상 203건, 안전운항저해 111건, 충돌 65건, 인명사상 49건, 화재폭발 42건, 좌초 20건 등의 순



○ 최근 5년간 월별 충돌사고 현황('13~'17, 단위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81	50	65	73	76	85	88	101	117	102	110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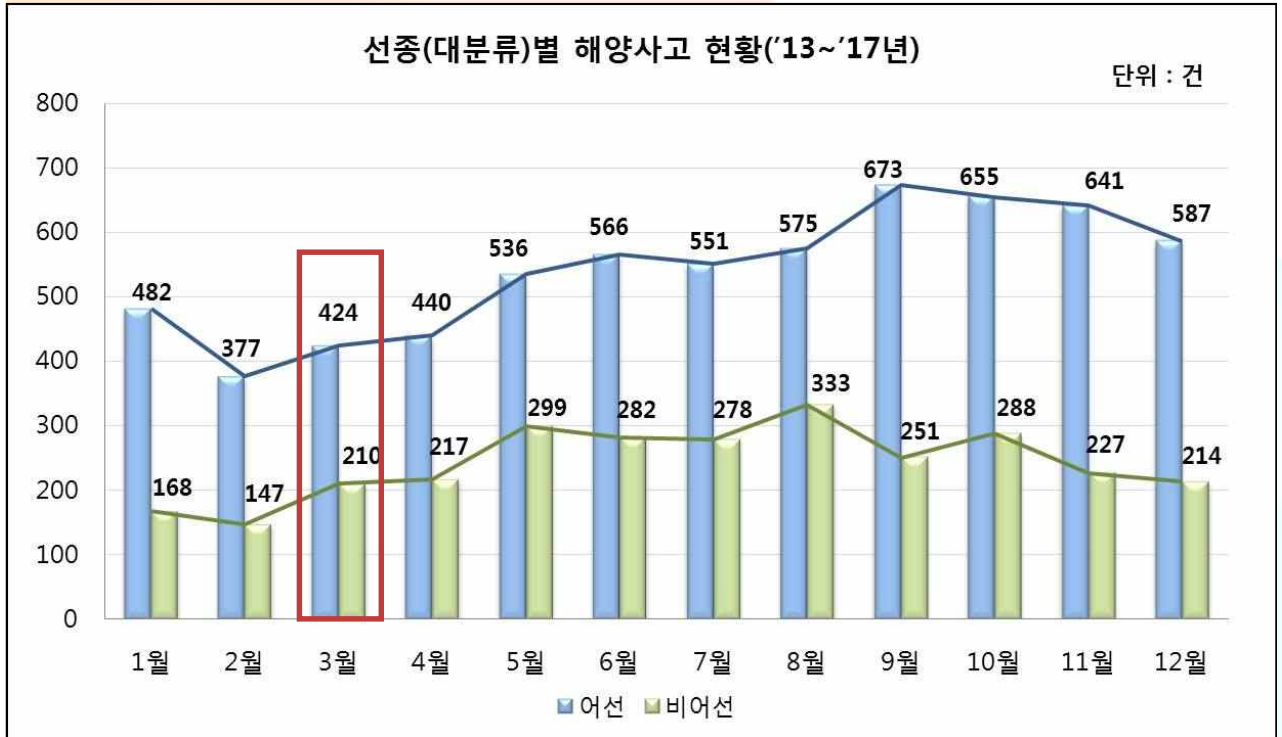
* (3월 충돌사고 선종별) 어선 74건, 화물선 19건, 예부선 18건

3월에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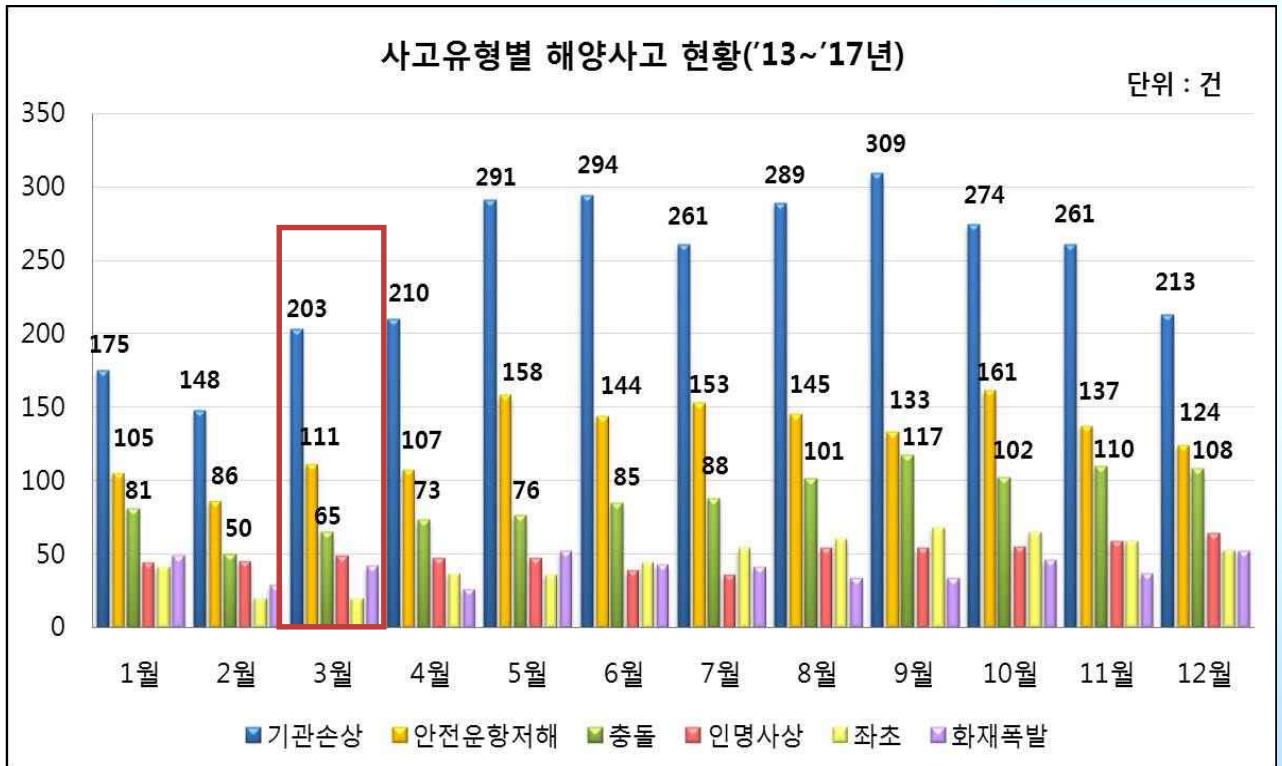
☞ 항해 및 조업 중 경계유지 철저, 피항협력 조치!!

▶ 최근 5년('13~'17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3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3. 을 참고

수온 동향

▶ **지난달(2월) 수온 분포**

- 2월의 연안 수온 : 월평균 $-1.7 \sim 11.8^{\circ}\text{C}$ 범위로 분포
 - 동해연안 : $5.3 \sim 5.5^{\circ}\text{C}$
 - 남해연안 : $5.3 \sim 11.8^{\circ}\text{C}$
 - 서해연안 : $-1.7 \sim 7.2^{\circ}\text{C}$
-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2월 표층 수온
 - 동해 연근해역 : $6 \sim 13^{\circ}\text{C}$ 로 평년에 비해 $0.5 \sim 2.5^{\circ}\text{C}$ 범위의 낮은 수온분포
 - 남해 연근해역 : $4 \sim 16^{\circ}\text{C}$ 로 평년에 비해 $0.5 \sim 1.5^{\circ}\text{C}$ 범위의 낮은 수온분포
 - 서해 연근해역 : $2 \sim 7^{\circ}\text{C}$ 로 평년에 비해 $0.5 \sim 2.5^{\circ}\text{C}$ 내외의 낮은 수온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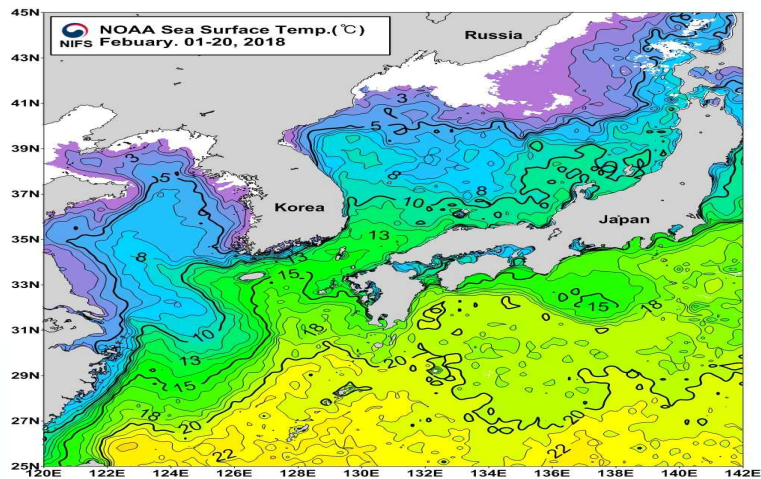


그림 12. 광역 수온 분포(위성)

▶ **3월 연안 수온 전망**

- 3월의 연안 월평균 수온은 평년에 비해 $1 \sim 2^{\circ}\text{C}$ 낮은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동해 연안: $4 \sim 9^{\circ}\text{C}$ 분포
 - 남해 연안: $8 \sim 13^{\circ}\text{C}$ 분포
 - 서해 연안: $3 \sim 8^{\circ}\text{C}$ 분포



어장 분포

▶ 3월 어황 정보

■ 지난달(2월) 어황

- 갈치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멸치는 평년수준
- 고등어, 살오징어, 참조기, 전갱이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 3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갈치, 참다랑어, 방어, 삼치 등을 대상으로 제주 동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권현망어업: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조업을 이어나가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의 어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근해안강망어업: 황해저층냉수와 연안수 및 황해난류에 의한 수온전선대가 형성되는 서해 남부해역~제주도 북서부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아귀류, 갈치, 반지, 병어 등의 어군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쌍끝이대형저인망어업: 삼치, 갈치, 병어, 전어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부(동중국해) 근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고, 남해 중부 근해에서도 일부어장이 형성되겠음.
- 대형외끝이저인망어업: 제주 남서부 근해~제주 북동부해역에 걸쳐 아귀류, 쥐치류, 가자미류, 눈볼대, 갑오징어류를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눈볼대, 가자미류, 아귀류, 보구치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 근해와 남해 동부(대마도 서부해역)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연·근해를 중심으로 도루묵, 청어, 기름가자미, 가자미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 저인망어업: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오징어채낚기어업: 연중 한어기로 접어들면서 남해 및 제주주변 해역에서 일부 조업만 이루어지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주요 어종별 어황

고 등 어	제주 서부해역과 대마도 북동쪽 해역에서 어군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로 제주 서부해역을 중심으로 조업하겠음. 연중 한어기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됨.
살오징어	겨울산란군의 남하회유로 우리 바다에서의 자원밀도가 크게 감소하여 연중 한어기(3~6월)가 시작되겠음. 제주 동부해역을 중심으로 일부어장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멸치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어지겠고, 하순 이후에는 울산~기장 근해로 회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봄철 어기가 시작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갈치	월동을 위해 어군이 남하하여 제주 남부 및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중심 어장이 형성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참조기	월동장으로 남하한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서부근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미성어(금지체장: 전장 15cm) 어획비율이 높아 소형개체 보호를 위한 어획자제가 요구됨.
전갱이	산란시기(2~4월)를 맞아 산란장인 동중국해로 남하하는 어군에 의해 우리 어장에서의 어군밀도가 낮아지겠음. 제주 주변을 중심으로 일부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기타	망치고등어는 제주 남동부 주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말쥐치는 제주 남서부와 북동부 근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어, 역시 순조로운 어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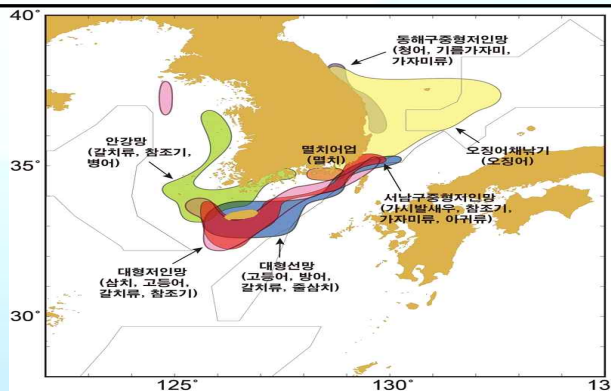


그림 13. 어업별 예상어장도(3월)

【부록 1】

3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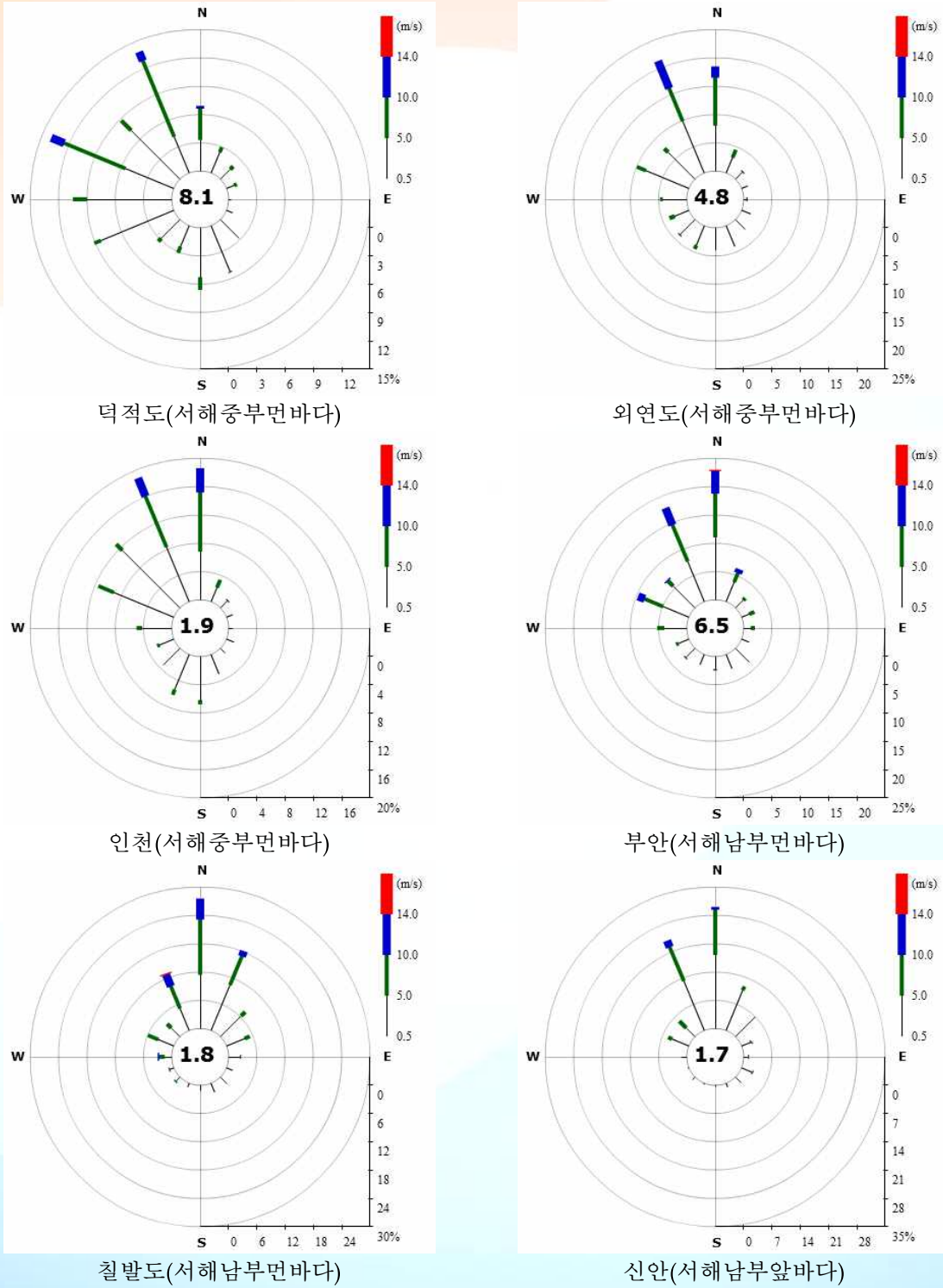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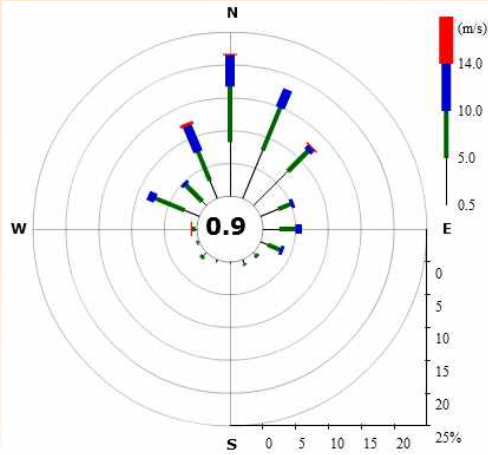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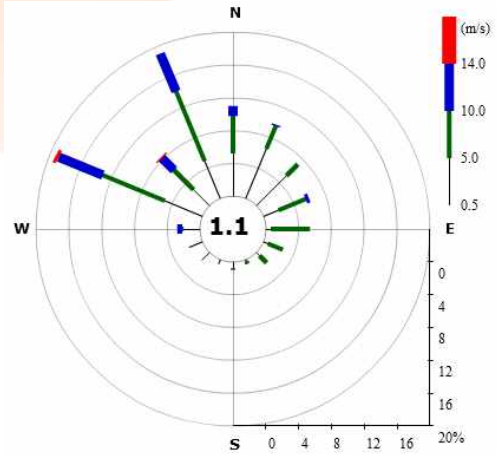


그림 1.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7년 3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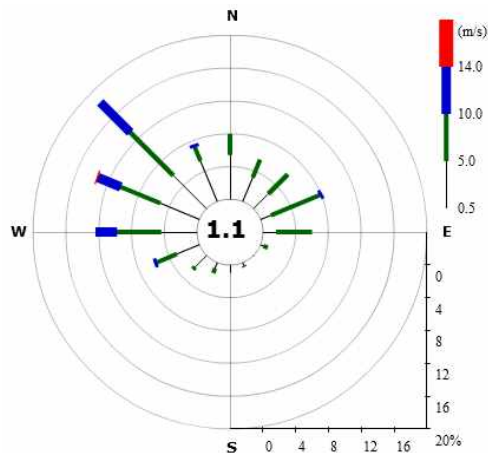
3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제주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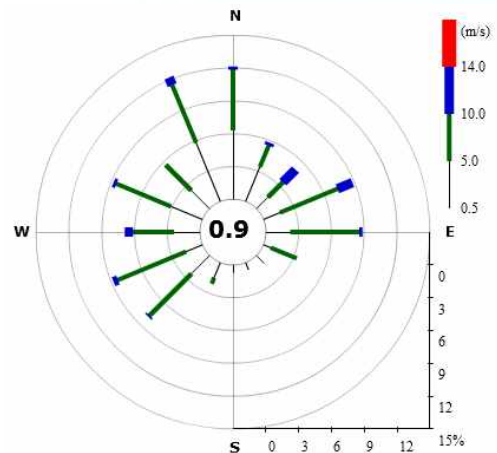
추자도(남해서부서쪽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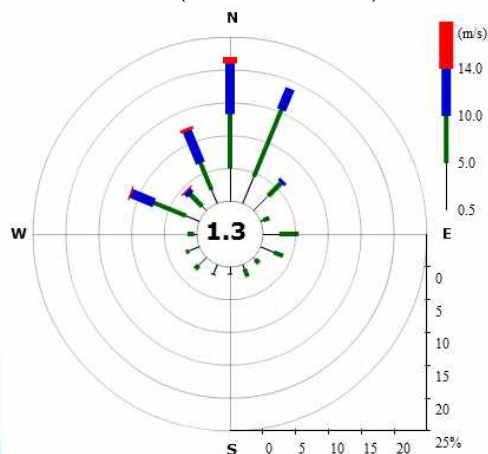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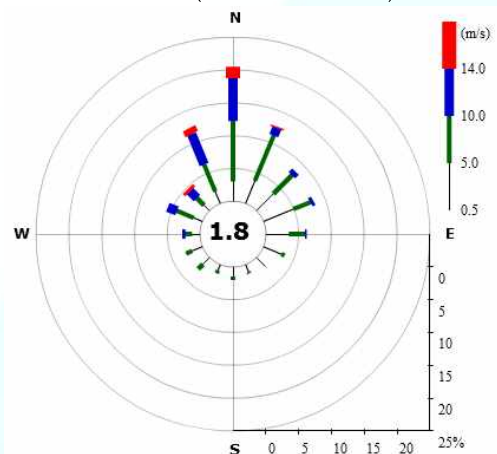
통영(남해동부먼바다)



거제도(남해동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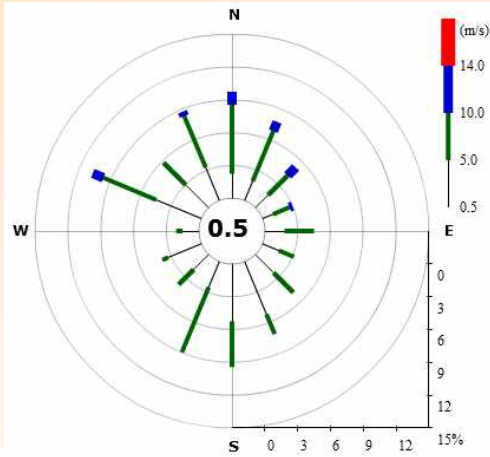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남쪽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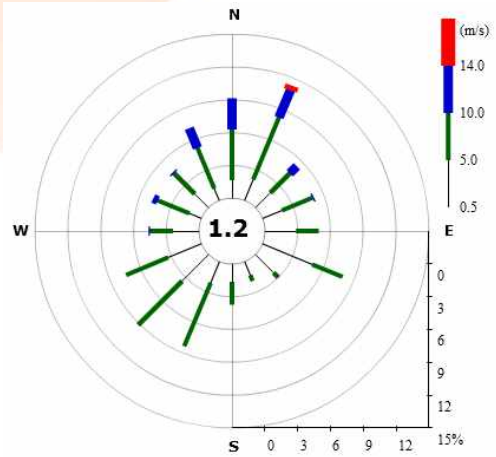
서귀포(제주도남쪽바다)

그림 2.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7년 3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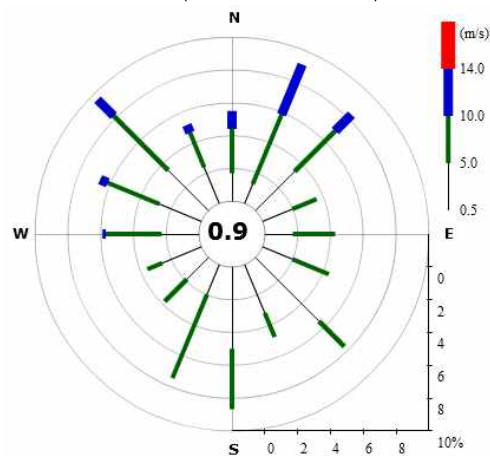
3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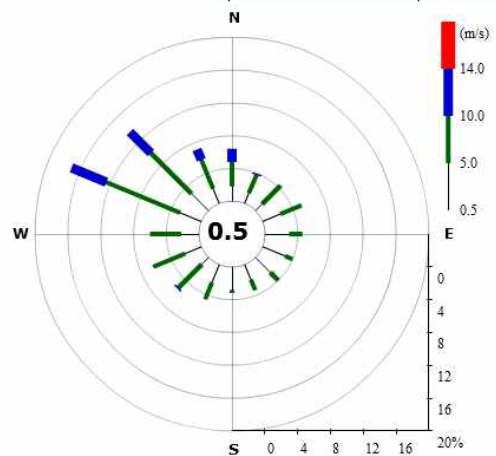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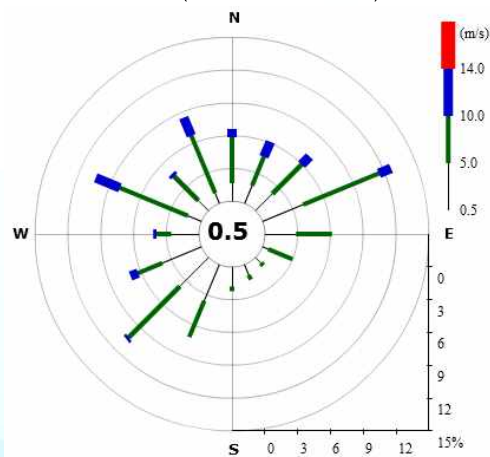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먼바다)



울진(동해남부먼바다)



포항(동해남부먼바다)



울산(동해남부먼바다)

그림 3.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7년 3월, 바람장미)

【부록 2】

3월의 주요 해상조난 사고 사례

제공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사고 사례

일 시	선 명	피 해	사고원인
'17.3.28 15:47경	**호 (7.93톤, 어선, 승선원 -명) **호 (2.76톤, 레저선박, 승선원4명)	선체파손	'17.3.28 15:47경 제부도 빨간등대 앞 해상 에서 레저선박 **호가 견시 부주의로 정박 중인 어선 **호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 ※ 당시기상 : 남서풍, 4~6m/s, 파고 0.5m, 맑음



레저선박 **호 / 어선 **호 충돌

【부록 3】

3월의 주요 해양 사고 사례

제공 : 해양안전전심관원

1. 어선 A호 B호 등 2척·산적화물선 C호 충돌사건

사건명		어선 A, B호 등 2척·산적화물선 C호 충돌사건
사건개요	선박	A호 : 어선, 39톤, 디젤기관 255kW 1기 B호 : 어선, 39톤, 디젤기관 255kW 1기 C호 : 산적화물선, 37,794톤, 디젤기관 8,821kW 1기
	일시	2017. 3. 11. 19:45경
	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60도, 약 9.7마일 해상
	피해	A호 : 선수부 굴곡, 선원 3명 부상 B호 : 선수부 굴곡, 선원 1명 부상 C호 : 화물창 외판 손상
	상황	A, B호는 멀치조업을 마치고 현측을 결합하여 야간에 귀항하던 중 횡단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C호와 충돌
	날씨	맑은 날씨, 북서풍 초속 2~4m, 파고 0.5m, 시정 약 2마일로 양호
원인	○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피항선인 C호가 경계소홀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고, 유지선인 A·B호 2척은 충돌회피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않음	
교훈	○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피항선은 레이더 관찰과 육안경계를 통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현변침을 해야 하고, 유지선도 경계유지와 충돌회피동작을 충분히 취해야 함	
충돌 상황도	<p>충돌 상황도</p> <p>C호 침도 : 060도 속력 : 13노트</p> <p>A, B호 침도 330도 속력 10노트</p>	

2. 낚시어선 D호 · 어선 E호 충돌사건

사건명		낚시어선 D호·어선 E호 충돌사건
사건개요	선박	D호 : 낚시어선, 9.77톤, 디젤기관 404kW 1기 E호 : 어선, 4.99톤, 디젤기관 232kW 1기
	일시 장소	2016. 3. 16. 06:00경 거제시 남부면 남여도 남동방 약 20m 해상
	피해	D호 : 우현 외판 및 조타실 일부 파손 E호 : 선수부 파공
	상황	조업 후 귀항하던 E호가 해상에서 정박 상태로 선상낚시 중이던 D호와 충돌
	날씨	맑은 날씨, 바람과 파도 거의 없음, 시정 양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이던 E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D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함 ○ 정박 중인 선박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 	
충돌 상황도	<p>충돌 상황도: 지도 상에 남여도, 북여도, 남동방, 북동방 등 지명 표시. D호(적색 화살표)와 E호(파란색 화살표)의 충돌 지점과 각도(310도, 220도, 90도)를 표시. E호는 3노트, D호는 투묘 중 상태.</p>	